

# 안전기반에 안전교육이 있었고 포상제도가 있었다.



**1. 개요** \_ 회전체가 많은 공정상 문제점과 고지 처리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의 감소대책을 찾기 위해 동종 타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지난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기본인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참여안전을 위한 포상제도에 중점을 두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2. 공정의 위험성** \_ 주 공정으로 고지입고에서 시작한다. 다음은 원질공정으로 종이를 가는 필터링공정과 고철, 비닐성분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링공정, 종이를 균일화하고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공정이다. 여기에서는 회전체가 많다는 것이고, 특히, 본 공정에서는 안전난간대가 있으나 고지 투입을 위해 상부를 개방한 데서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 침단장비를 이용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공정이다.

이어 초지공정으로 원질원료를 헤드박스 위에 뿌려주는 공정으로 산소결핍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후 와이어파트에서 분출되는 원질의 물을 자연낙하시키고, 프레스를 이용해 종이를 압착하며, 드라이어로 건조시킨다. 여기는 고온의 스팀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리·조정작업시 화상의 위험이 있다.

대체적으로 회전체가 많아 협착, 말림 위험과 고온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며, 수리·조정 작업시 시건장치 관리 소홀로 커다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안전교육** \_ 안전관리자는 매 홀수달에는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리감독자 교육에 집중시켰다. 예전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부장급 이상으로 교육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려워 늘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교육 불참자 한명이 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변경해 감에 따라 안전교육의 참여는 늘 100%에 근접한다.

안전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시기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

종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자라는 갈대 모양의 파피루스라는 풀에서 부터라고 한다. 이러한 종이가 현대에 새로운 종이로 발전하여 오늘 찾은 주식회사 고려제지에서는 골판지용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다.

1997년 상업용 제품의 본격 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주식회사 고려제지로 개명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려제지는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국내의 매출과 함께 동종업계 선도 기업으로 우뚝섰다. 여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안전에 안전교육과 포상제도가 있다.

며,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안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안전교육 참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실시되며, 이 시간대를 연장근무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에 따라 부서별 평가에 반영하고 포상제도에도 반영한다.

**4. 포상제도** \_ 포상제도는 동기부여가 우선 목적인데, 고려제지 또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다른 기업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곳 고려제지에서는 그 효과를 100% 이상 활용하고 있다. 핵심사항은 부서별 경쟁을 통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재해 1배를 달성할 때마다 포상금 1만원이 지급된다. 무재해 1배 달성 기준도 부서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데, 총 평가 대상 8개부서 중 관리, 영업, 자재를 관리파트로, 원질, 초지, 공무, 원동, 품질환경을 현장파트로 구분하고 관리파트는 340일을 무재해 1배로 하고, 현장파트는 170일을 무재해 1배로 평가한다.


무재해 1배 달성했다고 모두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포상대상 부서 중 안전교육 불참자, 안전수칙 불이행, 불안전행위 유발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처리 건수가 연평균 3건이고, 사소한 사고로 공상처리 된 건수가 연간 평균적으로 15건 이었던 것이, 연간 평균 3건의 사소한 사고 발생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경미한 사고도 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 등 간접업무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바뀐 결과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_ “서두르지 말며,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입이 마



르도록 이야기 하는 이대영 공장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제지는 기본만 충실해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홀수달을 중심으로의 안전교육에서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짝수달도 더욱 보완하여, 안전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택 기자>